

창립일 1967.9.17. | 제59권 2호, 2026.1.11.

* 지난주 강단제목 : 한 개인과 가문을 치유한 파수꾼 사도 요한 (창 45:4-5, 요이 1:1-2)

(1부) 오전 8:30 · 인도 : 심한결 목사, 설교 : 정윤돈 목사

(2부) 오전 11:00 · 인도 : 박범서 목사, 설교 : 정윤돈 목사

★ 입례송

★ 예배의 부름

★ 응답송

★ 예배선언

★ 신앙고백

★ 경배의 천양

★ 그때과 용서의 말씀

★ 주기도

★ 성시교독

오르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찬양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사도신경(새번역) / 다같이

5장. 이 천지간 만물들아 / 다같이

설교자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주기도송) / 다같이

121. 주현절(1) / 인도자와 회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이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미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시36:5-10)

찬송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 다같이

중보의 기도

(1부) 최명홍 장로 (2부) 정세완 장로

성경봉독

야가 1:1-6(구약 960쪽), 요한복음 3:16(신약 146쪽) / 인도자

찬양

(1부) 오직 / 시온찬양대 (영상)

(2부) 주의 길 따르리 / 시온찬양대 (현장)

말씀의 선포

예수님의 참사랑을 노래한 야가 -복음으로 여는 야가- / 설교자

봉헌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 다같이

교회소식

설교자

★ 결단의 찬송

새 힘을 얻으리라 / 다같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능력을 더하시리

독수리가 날개 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도다 땅 끝까지 끝 날까지 주의 백성 불드시니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 파송의 말씀

설교자

★ 봉헌기도 · 축도

정윤돈 목사

다음 주 기도 : (1부) 신승훈 장로 (2부) 라종화 장로

★ 표는 일어서서

· 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부서예배

유치부	오전 11:00	인도, 설교 : 이현규 목사 · 장소 : 3층 제2렘넌트실
태영아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박범서 목사 · 장소 : 5층 참사랑홀
어린이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박범서 목사 · 장소 : 5층 참사랑홀
중고등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박범서 목사 · 장소 : 5층 참사랑홀
대학청년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박범서 목사 · 장소 : 5층 참사랑홀

* 매월 마지막 주 주일은 어린이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연합으로 예배드립니다. (장소 : 5층 참사랑홀)

수요기도회

시간 : 오전 10:30 / 오후 7:30 · 장소 : 1층 비전홀

기도 (오전) 김정연 집사 (오후) 김승훈 집사

인도, 설교 (오전) 김양순 목사 (오후) 박범서 목사

다음 주 기도 : (오전) 김태운 권사

(오후) 박희영 권사

금요심야기도회

시간 : 오후 8:00 · 장소 : 1층 비전홀

기관보고 중고등부

설교 이현규 목사

다음 주 기관보고 : 대학부

새벽기도회

월~토 새벽 5:30

(월) 심한결 목사

(화) 이현규 목사

(수) 이현규 목사

(목) 박범서 목사

(금) 박범서 목사

(토) 심한결 목사

2026 참사랑교회의 응답



으적성경 으적복음 으적예수

(이사야 34:16, 디모데후서 3:16-17)

교회소식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주 주일 오전 10시 20분부터 10시 40분까지 4층 당회실에서 새기족교육이 진행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친절히 신앙생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교회소식

- 예결산 심의를 위한 공동의회가 오늘 오전 2부예배 직후에 5층 참사랑홀에서 있습니다. 세례교인 이상의 모든 성도분들께서는 교회의 1년 흐름을 두고 기도하는 응답의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오후 2시부터 5층 참사랑홀에서 렌트부서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 강남노회 제직세미나가 오늘 오후 본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아래의 안내사항을 보시고 제직 전체 성도분들은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 일시 : 2026년 1월 11일(주일) 오후 5시, 장소 : 참사랑교회 5층 참사랑홀.
 - 참석대상자 : 강남노회 소속 교회 담임목사 및 제직 성도.
 - 강사 : 김송수 목사(증경총회장, RTS 교수) "제직에 대한 이해와 자세"
 - 회비는 따로 없고, 현금시간이 있습니다.
- 각 기관에서는 재정감사를 위해 제출하셨던 회계장부를 4층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기준에 벌급받으셨던 분들은 바로 수령해 가시면 되고, 신규 신청자는 미리 신청하시면 바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81조에 의거하여 기족 합산 및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하여 발행은 안됩니다.)
- 2026년 교회 요람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인, 가정, 직장과 관련, 요람에 기재될 내용을 수정하실 분들은 교역자실로 알려주시거나, 5층 로비에 비치된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주보 세본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어학연수는 다음과 같이 결정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은혜롭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 여명, 안예근 렌트부, 장소 : 홍콩 새생명교회 이원희 선교사 담임), 기간 : 약 4주)
- 매일 구원의 길을 기록하실 분들께서는 본당 앞에 준비된 용지를 가지고 가셔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시간과 현금안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오전예배 - 1부 : 오전 8시 30분, 2부 : 오전 11시. 장소 : 5, 6층 참사랑홀
 - 수요오전예배, 수요오후예배, 금요십자가기도회 / 1층 비전홀
 - 매일 새벽기도회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녹화하여 새벽 5시 30분에 전체 소통방에 올라갑니다.
- 주일 각 부서의 예배시간입니다.
 - (1) 오전 11:00~12:20 유치부 (2) 오후 2:00~3:20 태영아부
 - (3) 오후 2:00~3:20 어린이부, 중고등부 (4) 오후 3:30~4:50 대학 청년부
 - (5) 매월 마지막 주일은 오후 2시부터 렌트부서 연합예배로 드려집니다.
- 다락방 및 지교회 모임은 시간을 정해서서 줌이나 전회통화,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나 녹화를 하여 양육과 교제와 말씀포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토요일에 현금을 아래의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입금하실 때 이름과 현금명을 함께 기록해서 입금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참사랑교회)
(예 : 000주정 / 반드시 한글기준 7글자 이내)
 - 일반현금 : 신한은행 100-013-769840 - 주정, 십일조, 감사, 절기, 차량, 기타현금 등
 - 현대현금 : 신한은행 100-022-072886 · 정학현금 : 신한은행 100-033-576780
 - 선교현금 : 신한은행 100-033-576822 · RUTC현금 : 신한은행 100-035-010731* 현당, 정학, 선교현금, RUTC현금을 제외한 현금은 일반현금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 기관 및 교우소식

- 교역자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돈 담임목사 : 1.12 강남노회 신년하례회, 1.14~15 세계교사수련회)
- 대학입학시험 일정을 치르고 있는 수험생 렌트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원, 문정민, 송지수, 안나근, 양승우, 여명, 황세희)
- 군과 해외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주보 14면에 있습니다.)
- 교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권사, 김원일 집사, 이영경 집사, 이순덕 권사, 박숙자 집사)

■ 참사랑 RUTC소식 (정치, 경제, 문화, 보건, 복지, 과학, 예술, 체육, 예능, 교육, 군경, 공무원)

- 금토일시대를 준비하는 참사랑 RUTC 렌트부의 활동신청을 받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및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체카톡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예교실 : 한 달에 1번(토요일) 10시, 2층 식당. (모집 중)
 - 트릭킹체조교실 : 당분간 운영중지. (담당 : 정수환 집사 010-5527-6067)
 - 스키&스노보드 : 동계. (담당 : 박찬열 집사 010-8760-0756)
 - 탁구교실 : 매주 토요일 11:50분, 2층 로비. (담당 : 최혜숙 권사 010-9430-9862)

교회소식

- 5) 수목캘리그라피 : 첫째, 셋째 토요일 19:00, 2층 식당. (담당 : 김순호 장로 010-8630-4414)
6) 기타클래스 : 매주 토요일 14, 17, 19시, 4층 당회실. (담당 : 이명 장로 010-2222-7624)
7) 축구&풋살 : 한 달에 1번. (담당 : 김승훈 집사 010-2098-3141)
8) 트리니티찬양교실 : 첫째, 셋째 수요일 14:30분, 3층 제2램넌트실. (담당 : 임예진 권사 010-6225-9661)
9) 취미그림교실 : 첫째, 셋째 토요일 17:30, 2층 식당. (담당 : 조수영 집사 010-3777-8315)
10) 복음영어클래스 : 주일(성인) 19시, 토(RT) 3:30분, 1층 초등부실. (담당 : 주은경 권사 010-9542-8212)
11) 드럼클래스 : 매주 토요일 6, 7시, 5층 침사랑홀. 8시 1층 비전홀. (담당 : 김승훈 집사 010-2098-3141)
12) 피아노&기초음악이론 : 개인별 레슨 진행. 4층 친양대실. (담당 : 이석 집사 010-5067-1426)
13) WIO스마트팜 : 비정기적 열린 포럼 진행.
2. 연기, 연극, 영화, 방송, 뮤지컬 팀을 모집합니다. (담당 : 박범서 목사 010-6335-3719)
3. '서예교실'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 : 이현규 목사 010-9736-3556)
4. 피아노&기초음악이론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심한결 목사 010-8206-2024)
1) 강사 : 이석 집사. 2) 레슨방법 : 주1회 1시간(개인레슨). 3) 레슨장소 및 시간 : 4층 친양대실, 요일 협의.
4) 레슨비(4주 기준, 1인당) : 피아노 10만원 / 기초이론 6만원. 5) 모집인원 마감 때까지.
5. 취미그림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김순호 장로 010-8630-4414)
6. 성악 발성반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김희권 장로 010-2334-6713)
1) 강사 : 김희권 장로. 2) 레슨장소 : 4층 친양대실.
3) 레슨방법 : ① 매주 화요일 오후 2~4시(회비는 참석할 때마다 1.5만원).
②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오후 12시 30분(회비 : 월 6만원).
7. 자전거 타는 방법 교육 및 안전교육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1) 대상 : 초, 중, 고교생. 2) 장소 : 올림픽공원(평화의 광장). 3) 기간 : 모집 후 결정.
4) 교육기관 : "스포츠레저교육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 : 강인규)

■ 훈련 및 집회소식 (해당되는 분들이나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매주 토요일 산업선교(오전 9시), 전도학(오전 9시 40분), 핵심예배(오전 10시 30분)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본교회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층 비전홀에서 핵심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드립니다.)
2. 세계교사수련회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지속해야(행1:3)'를 주제로 1월 14일(수)부터 15일(목)까지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3. 세계청소년수련회가 '미래를 준비하라(행1:1, 3, 8)'를 주제로 1월 19일(월)부터 23일(금)까지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본교회는 1차 일정(1월 19~21일)으로 인도받습니다.
4. 237화요제자훈련이 1월 27일(화)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1월 행사 및 일정

구분	본교회 일정 / 세계복음화전도협회 일정
0주차	송구영신예배(12.31) / 월단기기도회(12.31~1.1)
1주차	신년주일, 연말제직회(4), 신년하례회(5) / 중,고등(청소년)합숙 1차(5~8), 유아유치사역자수련회(6, 덕평 RUTC), 목회사모원(겨울학기, 7~8)
2주차	공동의회, 램넌트연합예배(11) / 영어합숙(초등부, 12~15), 세계교사수련회(14~15)
3주차	세계청소년수련회(1차: 19~21, 2차: 21~23, 덕평 RUTC)
4주차	태영아부모합숙(26~29), 237화요제자훈련(27, 덕평 RUTC), 초등합숙 1차(29~31), 램넌트데이(31)

1월 봉사위원 안내

구분	봉사위원
헌금위원	(위원장) 정연규 (위원) 김금남 라종화 신승훈 박희영 양경아 이정미 임소순 임혜연 박주은 이영경
성찬위원	(5층) 유승범 김순호A 이명 김영진 유경형 주재진 이수용 오국환 (6층) 정연규 여동훈
안내위원	(위원장) 여동훈 (1층) 양경심 김경희A (5층) 최신혜 이은숙 유경선 고진순 (6층) 이정미
주차안내	안수집사 전원

기도제목

■ 연간 기도제목

1. 참사랑교회를 통하여 지역복음화를 위한 3천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2026년도는 ‘오직성경’안에서 ‘참진리’를 발견하고, ‘오직복음’으로 ‘참치유’를 누리며, ‘오직예수’로 ‘참구원’을 증거하는 참사랑교회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2. 우리 총회를 통하여 민족복음화를 위한 40만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마르틴 루터, 존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교리에 기반한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속해 있는 참사랑교회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성경적인 신학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총회와 협회와 노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3. 한국교회를 통하여 237나라 5천 종족,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1천만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2026년 참사랑교회 ‘실천목표 기도문’

- “2026년도도 참사랑교회 실천목표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가운데 전도자, 제자, 중인의 응답을 앞당기게 하소서”
(1) 주일강단메시지 성취의 중인이 되게 하옵소서.
(2) 복음요절을 암송하여 생명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3) 성경 1독, 성경 쓰기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4)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그리기를 통하여 전도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5) 300영접, 30다락방, 3지교회를 통하여 성경적 전도운동의 중인이 되게 하옵소서.
(6) 5인 1조의 팀을 형성하여 전문교회 지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7) 나의 237나라와 나의 선교사를 찾아 선교의 비밀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8)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현장에 참사랑RUTC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9) 유튜브 10분 복음소식을 통하여 비대면 생명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10) 복음컨텐츠 제작을 통하여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구축되게 하옵소서.
(11) 300전도캠프 현장이 지속적으로 열리게 하옵소서.
(공원, 병원, 커피숍, 학교, 역, 직장, 소평센터, 노인정 등)
(12) 금토일시대에 사설적인 3가지 뜻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1) W.I.O 협동조합 (스마트팜, 인공지능, 로봇, 생명, 우주)
2) 치유시스템 구축 (증독, 정신, 영, 건강)
3) 예체능 협동조합 (스카, 체조, 탁구, 축구, 야기 등)
4) 고령화시대준비 (100세 목상요가, 120세 모세건강법)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5) 복음적인 교육복지 시스템이 모델적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13) 70나라 여행캠프를 통하여 세계선교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14) 70나라에 병원, 약국, 목상 등 영혼, 정신, 육신 치유의 절대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15) 참사랑전도학교, 참사랑집중전도신학원, 참사랑집중선교사훈련원, 참사랑핵심(주일)을 통하여 부흥의 응답을 주옵소서.

현장을 위한 헌신

70인 요원 (24명) /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계3:12)”
김경수·강승자·김대식 최정웅·전정아 유경형·리중화 주재진·권혜경 김경환·최복순 전인숙·김원일 김경희·임근일(양은숙) 신승훈(박영인) 박점순 정연규(이은숙) 김종복(한명희) 박지영
300인 용사 (131명) / “내가 ...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 주리니(삿7:7)”
정윤돈 최신영 양은숙 박영인 윤두영 강창숙 최봉식 최신주 박동영 최진희 오국환 이은희 조남은 이은옥 최영철 최후순 최명홍 이계옥 구자성 송영희 허경열 홍승희 박희순 이수용 이미자 유승범 주은경 이영순 박염재 양경심 강현자 김영길 박해숙 김석재 손혜옥 여동훈 백소정 서정례 박철남 이상준 서희석 나향님 이승재 심주환 김현숙 이용곤 김경희 송길호 최신혜 채용민 이효숙 오신자 정세완 박희영 정수환 최승화 박준민 흥인선 주칠우 정선희 권은희 민경환 이명재 구윤진 배형석 박인자 여성훈 노선희 김요셉 김혜경 김남숙 정민호 이서은 최양호 오난희 장성순 박난순 김순자 김 현 임경미 박병서 김진아 김미선 최칠규 한영화 장영호 여준석 김성열 김순호 배승찬 배명자 신옥희 김태운 아남현 오영숙 정향란 강요한 윤홍광 임혜연 박광현 박성혁 이신운 이희숙 왕진상 김선우 김종남 김주영 김영진 변연숙 윤소현 김성순 김요한 백순덕 김금남 김복남 임영순 김옥천 김순이 서성원 박서진 이현주 김선희 강경현 유경선 장년영 양순옥 공영호 박봉기 박준석 이영희

지난주 하나님께 드린 예물

주일헌금	정운돈 최신영 최정웅 전정아 박범서-김진아 심한결-정지혜 이현규-김수진 전인숙-김원일 김정엽 유경형 리중희 주재진-권혜경 이수용 오국환 정연규 이은숙 여동훈 박동영-최진희 최명홍-이계옥 정세완 신승훈 박영인 김 헌 김경희 배승찬 양경심 임근일 최칠규 최신혜 이미자 김금남 유승범-주은경 김순호 김영진-최혜숙 이 명 이명재 구윤진 강현자 정년영 송영희 오신자 김계자 이정운 이순덕 이순근 박인자 이영순 조성균-김갑례 김명철 장유미 김재귀-장소녀 김용관-김정순 임영순 전 진 김순자 박희영 안현희 최세경 정은숙 김희권 호민수 김준례 최아영 정재희 김성희 홍주원 조진우 박서이 한영화 김나경 최송화 김경애 정민호-이서은 유제숙 손병순-박정수 임소순 김정연 문혜영 이효숙 임혜연 김지수 박난순 이주형 정수환 오이라 임혜미 박찬열 조현지 양은숙 윤태자 안도근 조재형 김태운 김창균-임예진 이아연 황혜주 이민형 송길호 최일숙 임경미 최영국-김윤지 이연균 김소라 이현주 유승환-최아현 이진우 장유선-이정수 여 명 김영희 김승훈 한경숙 이민수-김숙희 김이리 유영석 전주율 조부영 이계옥 여현지 채송아 나경철-신현식 안선희 윤자현 방주은 안예근 손혜옥 홍명숙 배준서 무명20		
십일조	정운돈 김원일-전인숙 김경애 박점순 신혜선 오신자 안현희 임소순 김용관-김정순 손병순-박정수 유승범-주은경 강공이 김혜인 박주은 박찬열 이상구-이정미 신승훈-박영인 안경호 이현주 호민수 고진순 유영석 최명홍 최신혜 나경철-신현식 이수용-이미자 유경형-리중화 안선희 배준서		
감사헌금	정운돈 최신영 최송화 박서이 박진수 윤성희 정문철-이선아 전민식-구순자 전승우-김영미 김용관-김정순 전 진 박학규 양경심 정민호-이서은 정수환 방주은 김현진 안도근 박영인 김태율 조재형 조연희 유경형-리중화 이은숙 이계옥 박동영-최진희 이진우		
신년감사	이영순 전은정 장영호 임영순 손병순 문길순 박숙자 신승훈-박영인 한경숙 유영석 무명		
심방헌금	임상식-지복순 임민재		
자방헌금	박동영-최진희		
일천번제	최신영		
선교헌금	오신자 임소순 임영순 김용관-김정순 박서이 정수환 방주은 김창균-임예진 조현지 김순호 유승범-주은경 안도근 신승훈-박영인 이현주 김승훈 오국환 고진순 박동영-최진희 최신혜 유경형-리중화 최일숙 임혜연		
스리랑카 치유센터	정수환 방주은	스리랑카 치유센터(2026년도 합계)	12,000원
현당헌금	정운돈 최신영 전정아 임영순 김용관-김정순 오신자 임소순 박서이 정수환 방주은 조현지 유승범-주은경 김순호 신승훈-박영인 이현주 김승훈 조부영 오국환 고진순 박동영-최진희 최신혜 박지영 최일숙 임혜연		
장학헌금	박서이 정수환 방주은 김순호 유승범-주은경 신승훈-박영인 주재진 김승훈 고진순 박동영-최진희 최신혜 안도근 유경형-리중화		
어학연수	정수환 김승훈		
RUTC헌금	이현규-김수진 방주은 신승훈-박영인 김승훈 김이리 박동영-최진희 최신혜		

* 이름이 누락된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2026. 1. 1. ~ 2026. 1. 6.)

현당헌금 (2026년도 합계)	3,738,000원	차량 구입헌금 (2026년도 합계)	20,000원
참사랑 RUTC헌금 (2026년도 합계)	462,000원	어학연수헌금 (2026년도 합계)	120,000원
현당대출잔액 : 일본법화 458,000,000엔 (한화 4,351,000,000원 / 100엔환율=950원기준)			
일반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13-769840 참사랑교회 현당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22-072886 참사랑교회			
선교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33-576822 참사랑교회 장학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33-576780 참사랑교회			
참사랑 RUTC : 신한 100-035-010731 참사랑RUTC			

2026년 구역조직

- 교구장 : 정운돈 목사

- 1교구(1~3지역) 담당교역자 : 박범서 목사 | 총무 : 이미자 장로

지역/ 전도인	구역 (담당장로)	구역장	권찰	구 역 원 (※ 밀줄은 미션 훈련수료자)
1지역/ 최진희	①오금1 (오국환)	박인자	최진희	최정웅 전정아 박동영 최진희 박서윤 박찬열 배형석 박인자 배영광 정우연 배고은 박점순 이신순 최일숙 조영희 장혁준 최봉식 최진주 최해나
	②오금2 (박동영)	김주영	주은경	정운돈 최신영 정예승 정예준 정예건 이재풍 김주영A 이승현 이지훈 유승범 주은경 유현나 유현상 유준상 유민상 주종성 박학규
2지역/ 이미자	③방이1 (이수용)	양경아	유경선	이수용 이미자 이채은 여준석 양경아 여 명 여수아 정칠호 유경선 정동훈 이은순A 김홍기 문길순 김갑례 임상식 박서이 박필수 박소현 박경구 박도경 박세연
	④방이2 (최칠규)	홍미경	이미자	최재혁 홍미경 최옥현 최모연 백은진B 윤소현A 윤대현 윤차현 박현우 김창선A 최종현 김명자 김성배 강길자 김윤우
	⑤천호 (유경형)	리종화	홍경아	유경형 라종화 이대수 홍경아 이지오 이태이 홍형표 유승환 최아현 유나림 유하림 이영숙 박철남
3지역/ 김금남	⑥잠실 (이은숙)	조부영	김소라	조부영 양승현 양승우 황규철 김소라 횡다인 황세희 박광현 조영주 박근혜 박지혜 박지영 최보인 권순민 최형란 권유나 권유빈 이효숙 채송아 채정우 전민식 구순자 정재홍 전혜진 정리아 조현지 오은사 권구현
	⑦송파 (임근일)	양은숙	박승숙	김금남 김수형B 김수민 임근일 양은숙 임혜연 유영석 박승숙 유세정 유진아
	⑧하남 (김경희)	김영희	한영화	이현규 김수진 이시은 김경희A 현백규 김현아 김영희 황혜주 강정자 최칠규 한영화 최종인 손병순 김준석 윤수연 조수영 홍주원 최영국 김윤지 최리오 심성지 심성하 유지열 송수민
⑨서울 경기				장미선 김희서 김우준 권세미 윤지은 최명재B 고대중 박형진 류성미 박히느 박히론 김유진 안진성 문경화 안서윤 안채윤 안신영 신현수 이은진B 신민승 신연서 한경숙 변지영 박형석 강돌봉 박요셉 원철호 홍정아 강예은 강예림 김형준 박현주 김민규 최영희 김경남 김효경 문예은 최한나 최한별 권우현 정민진 김대우 박유신 김혜원 김기체 고정호 고정협 스모모 강지우 전영종 김유나 권영숙 구성하 김수정 김성애 이아름에 코 박준영 박준은 박지유 구황경 이선미 구아라 구지후 이기덕 김복란 이광훈 김명화 최민지 최민기 천 용 이유림 최지원 조현우 이채원 이재준 이시연 손완식 양은예 손보미 손재현 손보국 이정택 이은진B 김미선 이해승 이해준 이현우 이은우 조유연 조용연 이재윤 민희선 김가원 김도원 도성철 채희은 도성웅 김경현 강소영 김유원B 김소은 김석재 김정길 박순연 여성훈 노선희 여준후 여선후 박은선 김준일 최숙영 김하은 김유은A 김은성 송형자 정화영 한주아 한태빈 최영철 최후순 최요한 최지은 최두영 오주희 최하랑 최하율 최하린 김해수 이가원 박준민 황인선 박수진 박수정 이종관 서숙정 이주한 이지한

※ 위 명단은 각 구역원과 기도대상자의 명단입니다.

2026년 구역조직

- 2교구(4~6지역) 담당교역자 : 심한결 목사 | 총무 : 양정심 장로 - 3교구(7~9지역) 담당교역자 : 이현규 목사 | 총무 : 최신혜 장로

지역/ 전도인	구역 (담당장로)	구역장	권찰	구 역 원 (※ 밀줄은 미션 품 이상 훈련수료자)
4지역/ 김계자	⑨오금3 (정세완)	박희영	임경미	정세완 박희영 김 현 임경미 김 수 김혜린 정연규 이은숙 김춘례 임수미
	⑩오금4 (주재진)	신혜선	권혜경	김계자 주재진 권혜경 주예진 신혜선 유연정 유지훈 임경순 양순옥 임선규 김태운 김금녀 이종남 김영순
	⑪오금5 (최명홍)	이계옥	최송화	최명홍 이계옥 최송화 정수환 정재환 전성배 박은서 김영중 김준영 김민성
5지역/ 양경심	⑫울림파1 (김현)	장길순	이영순	유윤식 장길순 유효진 유윤재 이영순 박준석 설정화 박수환
	⑬울림파2 (여동훈)	정년영	김정연	정년영 김정연 한공순 허경열 허지선 박성진 박서연
	⑭울림파3 (양경심)	이현주	양경심	박염재 양경심 박주은 박주영 김수형A 이현주 김지후
6지역/ 김순호	⑮강남 (김순호)	손혜옥	임소순	김원일 전인숙 김구영 빌 마 김의찬 김주찬 안경호 김순호 안도근 안나근 안예근 손혜옥 김주원 김혜원 임소순 천혜숙 강현자 김나경 김희경 김경애 이정민 조연희 조재형 조현근 고경훈 김두원 김세희 안선희 안민희 안현희 박진수 윤성희
	⑯구리 (유승범)	이정미	임영순	이상구 이정미 이진형 최가은 이민형 이주형 임영순 임동영 장유진 이정수 장유선 이진우 김명철 장유미 김지유 전은정
7지역/ 이명	⑰오금6 (배승찬)	이명	임예진	박범서 김진아 배승찬 이 명 배준서 배현서 김창균 임예진 김희원A 김재승 윤순우 구자성 송영희 이명재 구윤진 이미화 김지영C 김민영 김근호 백순범 윤혜영 백소율 백하율 박환희 오상수 원태연 원아연 김희관 김승훈 김혜인
	⑲오금7 (이명)	최혜숙	홍명숙	김영진 최혜숙 김시언 김시아 최아영 홍명숙 손가을 손히늘 오신자 나콜라 박경아 라 나 아멜리 김순자 이병부 김정엽 김윤태 박숙자 도정호 유경순 도규철 이연균 도지민 김선희 김순호 이 하 안자용 안수현
	⑳오금8 (여준석)	고진순	이선아	오국환 이은희 오유라 오아라 유재숙 고진순 방주은 정문철 이선아 정유호 정은유 김창대 이정임 김아리 김P장A 위준승 문정민 김애경
8지역/ 최신혜	㉑문장 장지 (라종화)	최신혜	이가예	송길호 최신혜 송은수 송영민 송지수 신성원 이가예 신현우 신지유 장영균 송미경 장현규 장현우 장이준 장성준 박난수 장하영 장하은 민경환 권은희 나경철 신현식 나주희 나종훈 박진순 박주봉 박주승 장소녀 김지웅 김장B 유정빈
	㉒가락 (정연규)	백소정	정선희	여동훈 백소정 여현지 여종원 여은성 주철우 정선희 주이준 주이언 이용도 최재경 이다연 이아연 정민호 이서은 노은현 손상현 이군재 이순근 이수산나 허가이 임혜미
9지역/ 박영인	㉓거여 마천 (최진희)	박영인	이순덕	신승훈 박영인 신동윤 이정윤 이순덕 이영경 호민수 정은숙 박지현 김우순B 이 석 김재우 유충현 강공이 유승호 전주율
	㉔강동 (신승훈)	정향란	김숙희	심한결 정지혜 심주언 심지언 정향란 이민수 김숙희A 이하연 이하준 김은영 차영민 차승민 장영호 소선미 합조식 소숙현 함재이 오인태 김자영B 오하림 오후운 김선옥 김지수 김성재 윤태자 정창호 김미현 정승주 정동주

한 개인과 가문을 치유한 파수꾼 사도 요한

—복음으로 여는 요한이서—

창세기 45:4–5, 요한이서 1:1–2

2026년 사해 표어와 신앙 지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주보에 나온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오직 성경, 오직 복음, 오직 예수”이다. 캘리그라파를 하시는 장로님께서 써주신 글씨체가 참 멋지다. 이를 ‘참사랑 폰트’로 만들면 좋겠다.

(1) 오직 성경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이 ‘오직 성경’을 외친 이유는 당시 천주교가 ‘오직 교회’였기 때문이다. 교황이 결정하면 성경에 없는 내용도 교리가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는 교리나,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이다. 천주교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라고 물으면 머뭇거린다. 하지만 복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아멘”이라고 답한다.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혼자 성경만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신천지나 연호와의 중인도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다가 이단이 되었다. 그래서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같은 바른 신학적 바탕 위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참 진리를 찾을 수 있다.

(2) 오직 복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 마음, 삶, 인간관계까지 치유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베드로도 변화되는데 시간이 걸렸다. 복음을 완전히 체질될 때까지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다. 오직 복음 안에서 참 치유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요셉을 보라.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지만 요셉은 완전히 치유된 상태였다. 종리가 되어 형들을 만났을 때 얼미든지 복수할 수 있었지만,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님이 우리 기분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라고 고백했다. 이것이 완전 복음의 상태다. 복음을 가지고도 여전히 남편, 아내, 자식,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저도 형제 간에 원수 될 뻔한 상황이 수십 가지나 있었다. 그러나 복음으로 용서하고 뛰어넘지 않으면 다 원수가 된다.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된다. 완전복음이 되어야 이를 뛰어넘고 참된 치유와 사랑을 할 수 있다.

(3) 오직 예수 문선명이나 이만희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우리가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직 예수로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그 은혜로 누구든지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도전해야 한다. 24시간 복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 25시의 응답을 받아 영원토록 남는 삶을 살아야 한다.

복음 가진 자의 삶

(1) 복음 가진 사람은 항상 자신의 미래를 위해 고민해야 한다. 현장과 직장, 그리고 내가 맡은 일을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생각해야 한다. 과거에 잘했던 것에 머무르지 말고, 항상 앞을 내다봐야 한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준비되면 그 현장에서 빛이 될 수 있다. 남평계, 부모님평계, 직장평계 대지 말아야 한다. 내 자신의 평계와 이유를 대며 살면 안 된다. 모세처럼 120세까지 건강하게 쓰임받아야 한다. 지금은 AI와 로봇이 우리 일을 도와주는 시대다. 강단메시지를 불잡고 나아가면,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효과를 발휘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2)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요새 코스피도 올라가고 있지만, 2만, 3만까지 가고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방법은 237개 나라와 소통하고 그들을 살리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우리만 잘 살겠다고 하는 국수주의로는 세계와 통할 수 없고 결국 망하게 된다. 다른 나라들은 다 자기 나라만 강해지길 원하지만, 그것은 망하는 길이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다른 나라와 백성을 살리려고 해야 한다. 이것은 세상 어떤 정책에서도 나오지 않는, 오직 성경에만 있는 지혜다. 이것이 바로 선교다. 모든 나라에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자기 나라 못지않게 세계를 품은 사람들이었다. 우리 한국 곳곳에도 이런 선교 마인드를 가진 지도자가 세워져야 한다. 그럴 때 진정한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

매일의 삶을 축복으로 만드는 3가지 습관 (월단메시지)

이번 협회 월단메시지에서 중요한 실천 사항이 나왔다.

첫째, 매일 아침을 최고의 축복 시간으로 만들어라 눈 뜨자마자 찌증 내지 말고, 호흡을 길게 하며 스트레칭하고 기도하라. 친양을 틀고 사워하면서도 기도하라. (단, 목욕탕에서 출추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힘이 세도 미끄러지면 다친다.) 아침에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모든 엄려를 주께 맡기고 말씀을 묵상하라.

둘째, 매일 낮을 최고의 축복 시간으로 만들어라 모든 민족과 일들을 미래를 위한 축복으로 연결해야 한다. 이번

에 어학연수를 가는 램넌트들이 필리핀 대신 홍콩을 선택한 것도 그곳에 있는 모델적인 중직자와의 만남을 위한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다. 어디를 가든 만남을 축복으로 만들어야 한다. 불평하고 인상 쓰고 있으면 웠던 복도 달아난다.

셋째, 매일 밤을 최후의 작품(결작)으로 만들어라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일을 계획하고 말씀을 묵상하라. 저녁에 근심, 걱정, 잡념을 가득 안고 유튜브만 보다가 잠들면 영적으로 죽는다. 말씀 안에서 문제를 재해석하고 가장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어야 내일 희망하게 일어날 수 있다. 저녁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린다.

들어가는 말씀 : 요셉과 사도 요한의 사역

요셉은 완전복음 안에서 침진리와 참사랑을 발견하여, 가정과 가문을 치유하고 나아가 애굽과 전 세계를 살렸다. 사도 요한 역시 한 여제자(택하심을 받은 부녀)를 찾아가 그 가정과 가문을 치유하여 지교회와 미션홈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로 확산된 것이다. 한 사람, 한 가정을 살리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여러분도 20~30대 청년들과 문제 있는 가정들을 만나 함께라면 꿈에 먹으며 포럼하고 살려내야 한다. 내가 복음으로 행복해져서 그 행복을 전달하는 중인가 되어야 한다. 많은 응답 받고 이 행복을 계속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린다. 문제가 풀수록 감사하다. 내가 그 문제에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그 문제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느냐고 하며 사람들이 놀란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러니 오히려 문제도 발판이 되고 결국은 다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

1. 요한이서 개요와 5가지 전도 기초

(1) 가장 짧지만 핵심이 담긴 서신 요한이서는 신약성경 중 분량이 가장 짧다(총13절). 사도 요한이 한 ‘여제자(부녀)’와 그 가정에 보낸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처럼 보이지만, 사실 전도와 치유에 필요한 모든 핵심내용이 담겨 있다. 요한복음의 신학적 깊이와 요한계시록의 비전이 이 짧은 편지에 놓죽되어 있다.

(2) 사도 요한과 요한이서 기록목적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장 오랫동안 생존하며,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교회를 지킨 사령자였다. 또한 그는 말씀의 모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인물이었다. 요한이서를 기록한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도들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균형잡힌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면하기 위함이다. 둘째, 교회 안에 침투하는 거짓교사들과 이단들에 대해 경계하고 경고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요한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도 요한이 요한이서를 통하여 성경적인 다섯 가지 전도의 가장 기초를 보는 것이다.

(3)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5기초) 요한이서에는 성경적인 5가지 전도 기초가 다 들어 있다.

다른방: 마가다리방에서 시작된 생명 건 ‘오직 예수’ 운동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양육하는 만남이다.

팀시역: 사도행전의 바울처럼 항상 팀을 이뤄 현장을 움직이는 것이다.

미션홈: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되고 그 집에서 제자를 키우는 전략이다.

전문시역: 이 편지의 수신자인 ‘부녀’는 루디아같은 여성 산업인이었을 것이다. 자신의 전문성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지교회: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고 그 지역을 책임지는 지교회 응답을 받은 모델이다.

일반 주석서나 신학교에서는 요한이서의 이런 전도적 가치를 잘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전도현장을 아는 눈으로 보면 사역의 결론이 담긴 중요한 책이다.

2. 요한이서 1~6절 : 진리와 사랑

(1)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이라고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로 지칭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다.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장로이고, 다른 장로는 교회의 관리와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자신을 장로로 칭한 것은 전자의 장로로써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같은 장로를 의미하는 것이다.

(2) 1절에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했다. 여기서 ‘부녀’는 헬라어 원어로 ‘케리아(Kyria)’, 즉 ‘귀부인’을 뜻한다. 남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홀로 되었거나 남편이 밀지 않았을 수 있지만, 사회적 지위가 있고 경제력을 갖춘 여성산업인으로 보인다. 이 여인은 교역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우리 교회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식당봉사, 성가대, 교사로 헌신하며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분들이 계시듯, 이 여인도 교회를 살뜰히 챙기는 헌신자였다.

(3)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서로 시랑하는 이유가 인간적인 친분 때문이 아니라 ‘진리(예수 그리스도)’때문이라고 말한다. (2절,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우리는 본래 남을 사랑하거나 용서할 수 없는 존재다. 하지만 진리되신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나를 용서하셨기에, 그 사랑에 힘입어 태인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다. 내 인격이나 착한 성품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랑의 근원이다. 이 말씀은 사랑의 근원을 설명해 줄 뿐 아니라 워드(With), 임마누엘(Immanuel), 원니스(Oneness)의 축복도 설명해 주고 있는 요절말씀이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깨달음을 속에서 나오는 사랑이 지속될 수 있는 참 사랑이 되는 것이다. 빨리는 안 되는 것 같지만 예배를 계속 참여하다보면 어느 날 참사랑의 체질로 변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4) 4절에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라고

했다. 우리 교회에도 금요철야예배에 나와 친양하고 기도하는 청년, 렘넌트들을 보면 목회자로서 너무 기쁘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남은 자(Remnant)’가 되어야 한다. 부모 탓, 교회 탓, 목사님 탓하며 원망만 하는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게 된다.

(5) 5절에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라고 권면한다. 6절에 보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말씀하시고 계신다. 이 여인이 믿음도 좋고 자녀도 잘 키웠지만, 아마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나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다. 교회에도 일은 잘하는데 꼭 누군가와 부딪히거나, 특정 사람과는 안 맞는 분들이 있다. 공동체 안에는 꼭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죽는 날까지 완벽할 수 없으며, 어떤 부분은 괜찮더라도 어떤 부분은 연약할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죽는 날까지 계속 발전하고 성숙해져야 한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기도해 주고, 중보해 주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우리 스스로도 윤리적, 도덕적, 영적인 모든 면에서 끊임없이 개선하며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그 언약을 붙잡고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바라보지 말고, 내가 먼저 최고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 사도 요한은 사명자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지속적으로 도전할 것을 권하고 있다. 24시간 완전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이 제시한 그리스도인의 절대목표는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고 후대를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명자 자신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실현하는 사랑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3. 요한이서 7~11절 : 이단 경계,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

(1)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했다. 당시 영지주의(Gnosticism) 이단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다. 이들이 곧 적그리스도다. 오늘날 한국에도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등 수많은 이단이 있다. 이들은 모두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엉뚱한 교리로 사람을 미혹한다. 또 신비주의(능력, 치유중심), 복음 없는 축복중심(중생-성결 / 성령충만-신유-재림-축복(성결교회, 순복음교회 교리)), 구원파(죄 사함만 강조하고 삶을 무시), 시한부 종말론 등등 복음을 왜곡한다. 지하철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며 깃발 들고 다니는 분들의 열정은 존경하지만, 때로는 그런 방식이 전도의 문을 막기도 한다. 성경적인 전도는 현장에서 조용히 제자를 찾고 그 사람에게 다락방하고 그 사람은 털사역에서 증인이 되고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것이 성경적인 전도방법이다. 복음을 가지고 참된 신학을 가지고 참된 진리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란다.

(2) 사도 요한은 요한이서 9절에서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이들을 모시느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10절에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왜 그랬을까? 과거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는 교폐가 붙은 집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그들과 논쟁하다가 말려들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성경에 “거짓의 아비 마귀”라 나와 있다. 우리는 누구에게 거짓말을 조금만 해도 미움과 양심이 찔리는데 이들은 모든 행동이 다 거짓말이다.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아직 ‘영적 유치원생’ 같은 분들이 많다. “너 진짜 구원받았어?”, “너 죄 없다고 확신해?”라고 공격하면 금방 혼쭐린다. “어? 나 지난주에 죄 지었는데...” 하며 불안해한다. 그래서 아예 접촉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물론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된 사람은 상관없다. 저는 예전에 서울역에서 전도하다가 여호와의 증인팀 10명에게 둘러싸인 적이 있다. 그들이 끝까지 “지옥은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라고 우기길래, 제가 미지막에 한마디 했다. “그럼 당신들은 지옥 없다고 믿으니까 지옥이나 가세요” 그랬더니 인상을 쓰더니. 없는 지옥 가리는데 왜 기분 나빠하나? (웃음) 이처럼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과 굳이 섞일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하나님께서는 사실 성삼위일체, 영세 전의 예정,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존재가 머리로 이해되는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성령의 역사다. 세상 사람들은 끝없는 우주의 신비나 지구가 자전하는 자연법칙은 잘 믿고 살아가면서도, 정작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계시다는 사실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중요한 진리의 성경구절 몇 가지만 깊이 묵상해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고 나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

(3)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 (9절)

마태복음 16: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도행전 4:12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난주 주일낮예배 메시지

요한복음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5: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랑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확정적으로 선포한다. 성경은 이미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른다. 천주교회에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선하게 살이야 하고 어느 정도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사실 정해진 기준은 없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란다.

4. 요한이서 12절 : 대면 사역과 가문복음화

(1)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슬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밀하여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리”고 했다. 편지나 글(비대면)로는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직접 가서 얼굴을 보고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디락방이고 팀사역이다. 직접 집으로, 직장으로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삶을 나누는 만남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정에서는 미션홈이 되고, 지역에서는 지교회가 되며, 직장에서는 전문교회가 된다. 아마도 이 부녀(여제자)와 자녀들은 사도 요한의 방문과 지도를 통해, 훗날 그 지역을 살리는 지속적인 말씀 운동과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도 237나리와 5천 종족의 모든 사명자 가정에 이런 지교회가 세워지도록 도전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절대목표이다.

(2) 13절에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네게 문안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인들의 절대목표는 후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이다. 여기서 ‘네 자매의 자녀들’이라면 촌수로 조카가 된다. 이 ‘부녀’는 자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자매의 자녀들(조카)까지 쟁기고 복음 안에서 소통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나에게도 첫 조카가 태어났을 때가 기억난다. 신학생 시절이었는데,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도 아장아장 걷는 조카가 보고 싶어서 집에 뛰어가 놀아주곤 했다. 조카가 너무 예뻐서 누님에게 “어쩜 이렇게 예쁘냐”고 했더니, 누님이 시크하게 한마디 했다. “야, 나중에 너도 네 자식 낳아 봐라” 그때는 좀 섭섭했는데, 나중에 내가 자식을 낳아보니 누님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 내 자식 뿐만 아니라 친인척과 조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전도자, 선지자가 되시길 축원드린다.

(3)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편지를 받은 이 여인은 가문복음화를 이룬 사람이다.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어도 교역자들을 통해 말씀과 기도, 전도포럼이 소통되고 있었다. 아마도 이 여인이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여 자기 조카들이 있는 곳에 디락방이 열리게 했고, 그 결과 조카들까지 사명자로 변화되었을 것이다. 한 여인의 혼신이 결국 자매와 조카들, 즉 가문 전체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여러분도 “내 자식만 잘 되면 되지”하지 말고 사촌, 친척, 친구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가문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결론

성경적인 5가지 전도운동(디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나 본문의 여제자처럼 개인과 가정, 가문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파수꾼으로서 쓰임 받는 모든 성도와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참사랑 RUTC현황 (예체능체험교실)

	시간 & 장소	담당자		시간 & 장소	담당자
여행캠프	모집 시	정창호 집사	서예교실	한달 토 10:00, 2층 식당	모집 중
트럭킹체조교실	당분간 운영중지	정수환 집사	스키&스노보드	동계	박찬열 집사
탁구교실	매주 토 11:50, 2층	최혜숙 권사	수목캘리그라피	1, 3주 토 19:00 2층 식당	김순호 장로
기타클래스	매주 토 14, 17, 19시 4층 당회실	이명 장로	축구&풋살	한달 토 오후	김승훈 집사
트리니티친양교실	1, 3주 수 14:30 3층 제2邯郸실	임예진 권사	취미그림교실	1, 3주 토 17:30 2층 식당	조수영 집사
복음영어클래스	매주 토 15:30, 주일 19시 1층 어린이부실	주은경 권사	드럼클래스	매주 토 18, 19, 20시 5층 본당, 1층 비전홀	김승훈 집사
피아노& 기초음악이론	개인별 래슨 진행 4층 친양대실	이석 집사	WIO스마트팜	비정기적 열린 포럼 진행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정윤돈 010-8033-5678	부목사	심한결 010-8206-2024	목사(전도관)	김양순 010-8328-0132
원로목사	최정웅 010-5260-5511		이현규 010-9736-3556	협동전도사	전인숙 010-8881-5222
부목사	박범서 010-6335-3719	교육전도사	배고은 (네덜란드파송)	사무간사	박난순 010-9930-5558
전도인	최진희 이미자 김금남 김계자 양경심 김순호 이명 최신혜 박영인				

장로	(시무) 유경형 주재진 이수용 오국환 정연규 여동훈 박동영 최명홍 정세완 신승훈 라종화 김현 여준석 김경희A 배승찬 양경심 임근일 최칠규 이은숙 최신혜 이미자 김금남 최진희 박영인 유승범 김근호A 이명 김영진 (협동) 이군재 전민식 강공이 (해외) 최봉식
	(은퇴) 이명재 강현자 정년영 송영희 오신자 (명예) 박철남 김계자 이정윤
찬양대	(지휘) 고경훈 (오르간) 이서은 임예진 (피아노) 최신영 최송화 이석 (비올라) 채송아

예배 및 모임 안내

예배			교회학교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5층, 6층 참사랑홀	태영이부	주일 오후 2:00	3층 제1랩넌트실
	2부 오전 11:00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3층 제2랩넌트실
	오후 2:00	1층, 3층, 5층 (부서별 예배)	어린이부	주일 오후 2:00	1층 비전홀
	오후 3:30		중고등부	주일 오후 2:00	5층 참사랑홀
수요기도회	수 오전 10:30	1층 비전홀	대학청년부	주일 오후 3:30	5층 참사랑홀
금요심야기도회	금 오후 8:0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30	영상			
자체훈련			세계복음화전도협회훈련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새기족훈련	주일 오전 10:20	4층 당회실	산업선교	토 오전 9:00	1층 비전홀
복음소식	주일 오후 12:30	3층 주간보호센터	전도학	토 오전 9:40	
태영아공동육아	수 오전 11:30	3층 제1랩넌트실	핵심요원훈련	토 오전 10:30	
어린이사명자	주일 오후 1:00	3층 제2랩넌트실	중직자대학원	주일 오후 5:00	
중고기도회	주일 오후 1:40	5층 참사랑홀	초등전도신학원	토 오후 2:00	
집중전도신학원	수시	참사랑교회	청소년전도신학원	토 오후 2:00	

국내외선교지

해외선교지	군파송자
[일본] 히로시마참사랑교회] 심주환-김현숙(심성지 심성하 심성오 심성권)	[육군] 백승원 송영민
해외파송자 (27)	

[미국] 최형란-권순민(권유나 권유빈) 김국한 박석훈 최봉식-최신주(최해나) 이슬 강지우 이진형-최기은 정예준
[호주] 박영준-김수미(박윤성 박민성) 박영환 [영국] 박경이-니콜라(라나 아멜리) [네덜란드] 배고은
[일본] 오유라 [인도네시아] 전민식 구순자

교회 역사

오금동과 함께 성장한 교회 |

1960년대 후반, 정부는 서울 전역의 판자촌을 정리하는 정착지 조성 이주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자촌 주민들은 청소차에 실려, 허허벌판이었던 오금동에 버려졌습니다. 한 가구에 주어진 여섯 평의 땅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가난과 고통 속에 살던 이 정착민들을 안티깝게 바라보던 남대문교회의 김근숙 권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군용 천막 하나를 빌리고, 직접 복을 치며 사람들을 불러모았습니다. 이것이 오금동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인 오금중앙교회, 지금의 참사랑교회입니다. 대미리산에 세워진 조그마한 오금중앙교회 성전은, 마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1980년 부임한 최정웅 목사와 함께, 이렇게 지역 사회 속에서 성장해 온 오금중앙교회는,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품고 2005년에 참사랑교회로 이름을 변경했으며, 2007년에는 현재의 자리에 세 번째 성전을 지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참된 해답, 참된 사랑인 복음을 굳게 붙잡고, 이 복음만을 말하는 복음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참사랑교회는, 2018년 최정웅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정운돈 목사를 담임목사로 위임하여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참사랑교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가입된 건강한 교회이며, 58년 동안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자라온 토박이 교회입니다.



교회 소개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

참사랑교회는 종교다원주의를 반대하며, 오직 복음만이 온 세상의 해답임을 믿는 교회입니다.

후대운동으로 후대를 살리는 교회 |

많은 후대들이 학교와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희망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참사랑교회는 후대를 살리고 인재를 키우는 것을 첫째의 우선순위로 삼고, 지역 인재 장학사업, 방과 후 활동 및 상담활동 지원과 같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교로 세계를 살리는 교회 |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류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 세워진 참사랑교회는 창립 이후 계속 해서 낙도 선교와 남아시아 선교를 후원해 왔으며, 현재는 일본 히로시마와 아프리카 남수단, 몽골 울란비토르, 필리핀 마닐라, C국 S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 |

병들고 소외된 이들의 벗이 되셨던 주님을 본받아, 참사랑교회는 지역 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및 송파구와 협력하여 참사랑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행복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참사랑노인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렘넌트 및 사회복지선교국과 협력하여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